

사이버 공간을 지켜주는 '사이버수사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관 김태형

친구와 대화할 때,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때, 물건을 구입할 때, 영화나 공연을 예매할 때, 배달음식을 시킬 때, 병원 진료를 예약할 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이버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늘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중고물품 거래사기, 악성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악용한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범죄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통신망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한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사이버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수사관이죠. 사이버수사관은 어떻게 사이버 범죄자들을 검거 할까요? 이들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요?

▼ 사이버수사관이 하는 일은?

사이버 범죄 수사부터 향후 발생할 범죄 예측까지

사이버 공간 수색 → 용의자의 IP주소 등 개인정보파악
→ 용의자 주변 수색 → 용의자 검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사이버 범죄에 미칠 영향 연구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학습 필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사이버수사관이 하는 일을 살펴봅시다. 어느 날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월 ○일 오후 ○시, ○○ 지하 철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 사이버 공간을 살피던 사이버수사관은 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작성자의 IP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작성자의 통화내역과 집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이버수사관은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해결한 것이죠.

이처럼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사이버수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정보통신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아직 사람들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실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이 사이버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해야 합니다. 가령 ‘인공지능의 발달로 나타날 사이버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 또는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질문해보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이버 범죄를 예측해보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사이버수사관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김태형 사이버수사관은 “사이버수사관은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여기에서 생길 문제점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과 기기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공부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 **사이버수사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본적인 체력과 법률 지식+컴퓨터 활용 능력+윤리 의식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

▶컴퓨터 활용 능력 필수!

▶최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필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관에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더구나 정보통신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첨단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이러한 첨단

기술의 원리를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사이버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보길 바랍니다.

사이버수사관은 일반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회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사이버수사관이 되려면? 경찰직공무원 시험 합격 후 사이버수사대 지원, 경력을 쌓아 특채 입사도 가능**

경찰직공무원 시험 합격 후 사이버수사대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전산 관련 학과 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아 특채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보안시스템 개발 경험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해킹방어대회 입상 경력 있으면 유리

사이버수사관이 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경찰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컴퓨터 및 정보기술(IT) 지식을 쌓은 뒤 사이버수사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사이버수사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하는 것이라면, 이제 소개할 두 가지 방법은 특별채용을 통해 입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산학 △컴퓨터공

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등 전산 관련 학과 학위를 받고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사이버수사대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보처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경력을 쌓은 뒤 특별채용 형태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금융보안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해킹방어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사이버수사관이 되기 위한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컴퓨터 및 정보 기술(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이버수사관,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강인한 체력도 겸비해야

사이버 수사관의 수사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용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잠복근무도
▶체력도 중요!

사이버수사관이라고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동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수사관 역시 다른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잠복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뿐, 용의자는 우리 곁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관에게는 현장에서 용의자 검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체력이 요구됩니다. 김태형 사이버수사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할 뿐, 수사 과정 자체는 다른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체력을 갖추는 것 역시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공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 사이버수사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이버 범죄부터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까지, 사이버 수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사이버수사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수사관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함께 갖추길 바랍니다.